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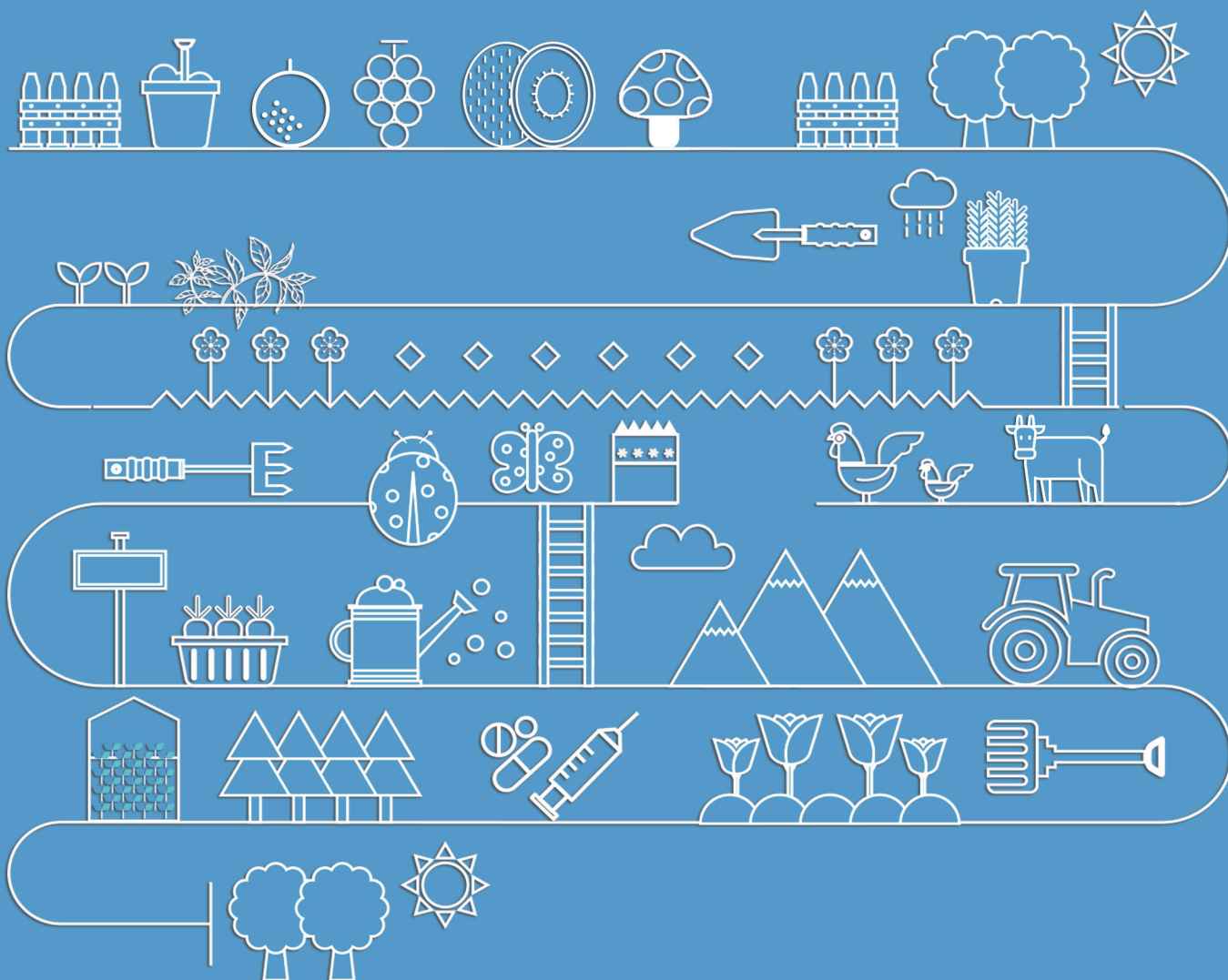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978-89-6849-639-4[93520]

제1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키위 수출연구사업단

(동향보고서)



키위 수출연구사업단

- ✓ 본 결과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o. 618001-5)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IPET) through (Export Promo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und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No. 618001-5)
- ✓ 내용의 무단 복사, 인용을 제한하며 인용시 대표 저자의 사전 승인을 요청함

주관기관명 : 키위 수출연구사업단

조정안

키위 수출연구사업단 (동향보고서)

CONTENTS

1. 개요	1
2. 세계시장동향	2
3. 국내 키위 산업 여건 변화	6
4. 키위 주요 수출국 시장 현황	7
가. 일본	7
나. 말레이시아	13
다. 싱가포르	15
라. 홍콩	22
마. 필리핀	27
바. 베트남	30
사. 대만	34
5. 동남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국 현황	37
가. 뉴질랜드	37
나. 칠레	38
다. 이탈리아	39
[참고문헌]	40

1. 개요

한국산 키위는 2015년 11월 싱가포르 레드키위 수출을 시작으로 키위 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개기를 마련한 후 수출 농산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품목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감귤의 6대 과종에 이어 우리나라 주요 7대 과종으로 선정되면서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재배면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키위 시장은 자국 생산량 보다 수입량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에 힘입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키위농가의 소득 역시 타 과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단계적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산의 가격하락은 국내 키위농가들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수출시장의 확대와 수출물량의 증가는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산 키위는 최근 3여년 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수출품에 대한 규격화, 잔류 농약의 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당초 예측되었던 수출품목으로의 급속한 성장은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산 키위의 지속적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잔류농약 관리를 통한 안전성의 확보, 수출품 규격화 등의 선결과제 해결뿐 아니라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한국산 키위 확대를 위한 각국의 시장정보 분석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산 키위 및 경쟁국 키위의 유통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한국산 키위의 수출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세계시장동향

가. 세계 키위 생산동향

(1)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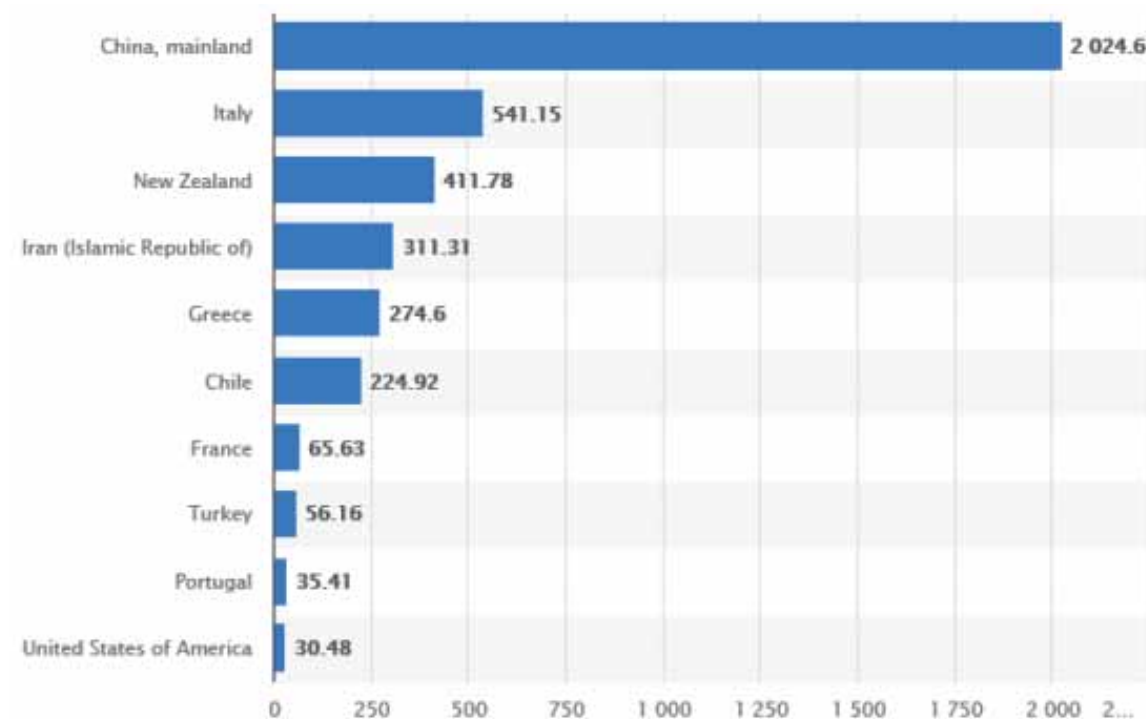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키위 생산 Top10 국가 생산량, 2017

2017년 세계 1위 키위 생산국은 중국으로 2,024천톤 수준이며 이탈리아 뉴질랜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생산량으로 보면 상위 3개국이 전체 생산량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주요국 키위 생산량 변화 (2007~2016)

(단위 : 천톤)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	1,200	1,200	1,250	1,250	1,255	1,453	1,766	2,023	2,188	2,390
이탈리아	417	474	448	416	432	385	454	507	599	524
뉴질랜드	367	382	386	434	420	376	400	408	420	434
칠레	185	187	227	251	258	282	267	261	243	226
일본	33	38	35	27	26	30	30	32	28	26
한국	11	11	11	11	10	10	10	10	9	9
기타	337	456	501	455	508	518	537	597	664	666
합계	2,550	2,748	2,749	2,844	2,909	3,054	3,464	3,838	4,151	4,275

- 세계 키위 생산량은 2016년 4,275천톤으로 2007년 2,550천톤 대비 67.6% 성장하였다. 세계 키위 생산량의 80% 이상이 상위 3개국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며 기타 국가로는 이란 294천톤, 그리스 183천톤, 프랑스 65천톤이 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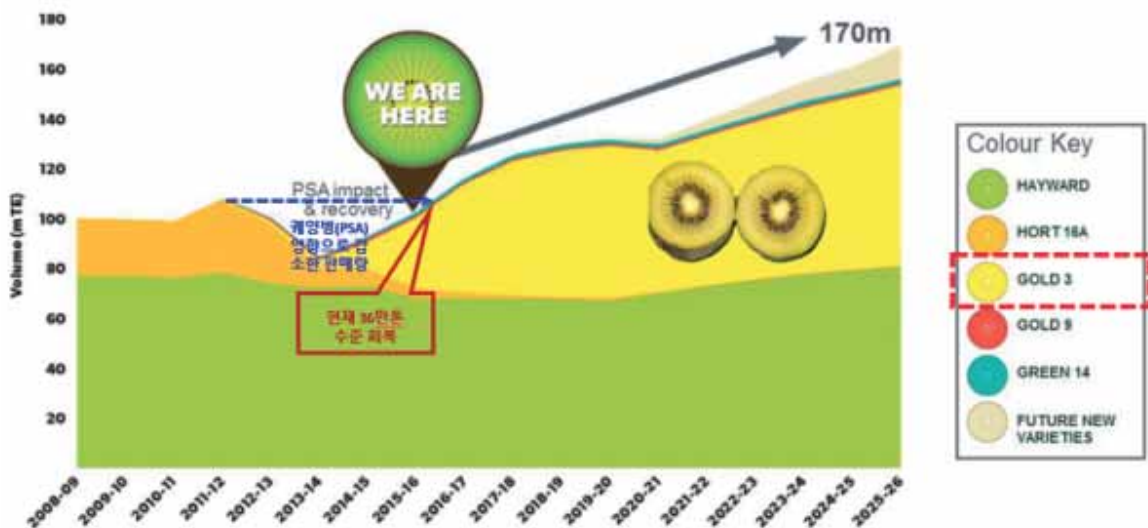
(2) 세계 키위 시장 변화 예측



* 자료출처 : 심포지엄 Zespri at 20: where next for NZ kiwifruit

〈Global kiwifruit production, 1998~2037〉

심포지엄 Zespri at 20: where next for NZ kiwifruit?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과거 헤이워드 품종 중심의 그린키위에서 골드와 레드과육의 키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중국의 경우 1980년대 말까지도 산업통계 예측이 힘들 정도로 산업화 속도가 낮았으나 최근 품종개발과 급속한 면적증가로 향후 전 세계 2/3수준까지 점유하는 키위생산 강대국으로의 변화가 예측된다.



* 출처: Frost & Sullivan의 분석보고

세계적 리서치 및 컨설팅 업체인 Frost & sullivan의 보고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매년 생산량 40만톤을 유지하다가 신품종 골드키위의 도입에 기인한 참다래 (PSA)의 피해 발생으로 판매량의 20% 이상이 급감한 상황에 처했으나 현재 회복 단계로 거의 과거 수준의 생산량에 도달하였으며 품종 전환에 따른 결과로 2025년 68만톤까지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중요한 점은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골드키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린 키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 점이다.

3. 국내 키위 산업 여건 변화

가. 한국산 키위 수출입 규모



* 자료출처 : kati.net

2016~2017년 일본 수출 증가로 인해 물량 및 금액이 확대되었으나 2018년 이후 일본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물량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우리나라 키위 수입량은 32,922톤 수준으로 수출량과의 격차는 75배 이상 벌어진 상황이다.

현재 한국산 키위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수출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출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안정적 수출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시장 내 확고한 위치 점유와 일본 집중 수출시장에서 벗어난 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한국산 키위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뉴질랜드 키위와는 상반된 수확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근접 거리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출량의 격차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산 키위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와 대상국별 잔류농약의 관리가 급선무로 여겨지고 있다.

4. 키위 주요 수출국 시장 현황

가. 일본

표 2. 일본의 키위 수입량 (2018년 기준)

(단위: 톤, 백만엔)

국가	수입량	금액	단위단가 (엔/kg)	비고
합 계	106,081	40,950	386	
뉴질랜드	101,516	39,682	391	
한 국	333	102	306	
칠 레	2,136	444	208	
미 국	2,040	706	346	
조 지 아	56	16	286	

* 자료출처 : 일본재무성

일본의 연간 키위 수입량은 약 10만톤, 금액으로는 31,182 백만원 수준으로 해마다 소비량 증가에 따라 수입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시장 내 수입된 키위의 kg당 단가는 2018년 기준 뉴질랜드 391 > 미국 346 > 한국 306 칠레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단가 수준으로 볼 때 칠레산 보다는 월등한 품질과 뉴질랜드산에 준하는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키위 시장은 뉴질랜드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 에히메, 후쿠오카, 와카야마현 등에서도 키위를 재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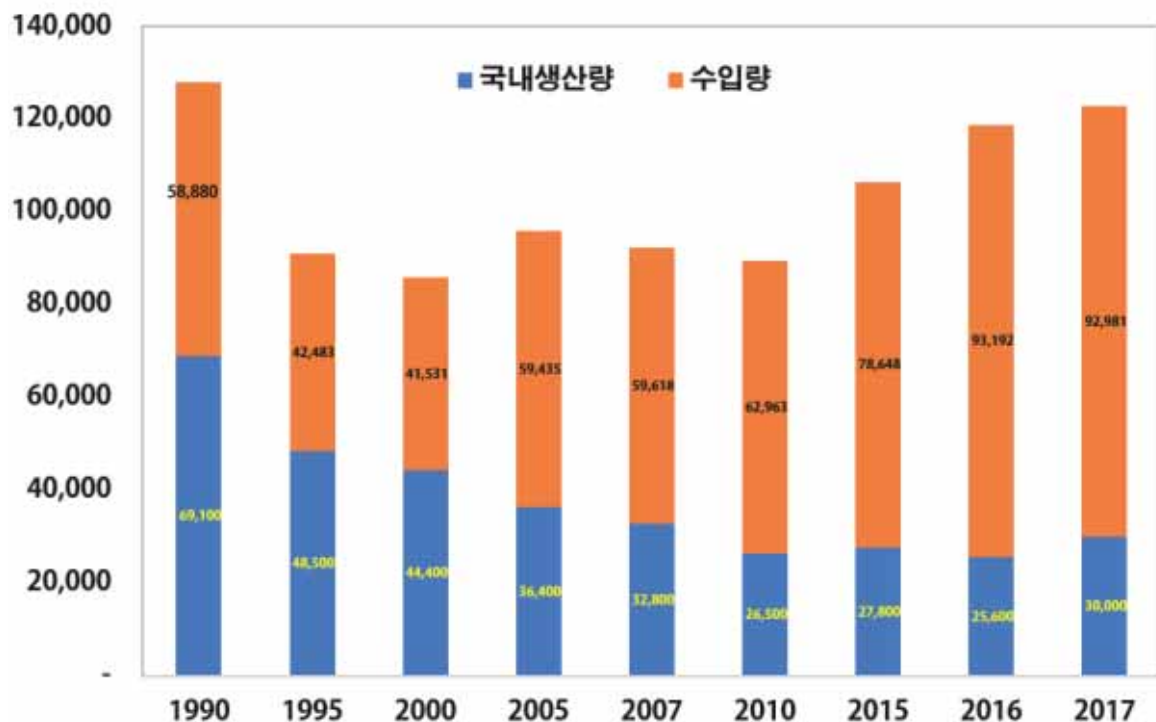
키위 재배면적은 1990년 4,370ha를 기점으로 2017년에는 2,000ha까지 감소하였고 출하량은 2017년에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2만 6,200톤을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일본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84%가 헤이워드(Hayward) 품종이며 뒤를 이어

제스프리골드가 6%를 점유하고 있다. 10월에서 11월에 수확하고 있고 일본산 키위는 대체로 신선과일로 소비되기 보다는 학교 급식이나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 소비되는 키위는 과거 그린 키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점 골드 키위의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감소하고 있는 과실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키위 소비량은 33.1% 이상 증가하였다.

일본 키위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제스프리는 키위가 건강에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키위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나 키위의 영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이 활발하다.

(단위 : 톤, %)



* 출처 : 일본농림수산부(www.maff.go.jp),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그림 2. 일본 키위시장 공급형태(생산량-수입량)

표 3. 일본 시장 내 한국산과 뉴질랜드산 수입현황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015 년산	한국			11	43	251	272	242	62	한국산 881톤
	뉴질 랜드	2,280	4,028	3,749	152	-	-	-	12,004	15,656
2016 년산	한국			124	225	305	234	237	50	한국산 1,175톤
	뉴질 랜드	5,305	5,705	5,632	2,015	-	-	-	9,447	19,552
2017 년산	한국			34	201	29	89	86	58	한국산 497톤
	뉴질 랜드	5,305	5,705	5,374	436					

일본시장 내 뉴질랜드산의 물량공급이 연장되거나 시즌 후반부 공급량이 증가되는 경우 한국산 소비시즌이 지연되거나 수출물량 급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산 수출물량은 뉴질랜드산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력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산 키위만의 플러스요인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림 3. 일본 시장 내 제스프리 유통제품 형태

표 4. 제스프리사 유통단위별 가격 비교

제품명	용량(개)	가격(엔)	개당 중량(g)	개당 가격(엔)
Green	-	-	168	108.67
Sungold	-	-	141	108.25
Jumbo Sungold	-	-	176	128
Sungold kiwifruit(Pack)	4	398	140	99.5
Green Kiwifruit(Pack)	4	377	160	94.25

* 조사기준 : AEON, Daiei Gourmetscity, Itoyokado, Seiyu, Piago Uny, 2016. 7.

일본의 대형 마트에서 키위는 일반적으로 낱개 판매되고 있었으며, 가격 또한 개당 가격을 사용하고 있었다. 4개입 팩(Pack)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또한 존재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고 팩 형태로 묶음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개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당 가격이 가장 높은 제품은 큰 사이즈의 키위인 Jumbo Sungold 제품으로 개당 128엔 수준이었고 같은 제품이라도 낱개 판매 시에는 각각 108.67엔, 108.25엔이었던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는 4개입 제품으로 구매할 때에는 94.25엔, 99.25엔으로 9~14.42엔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 3월 중(2019년) 일본 시장 내 키위 유통현황

- 지역: 긴자 / 시부야 백화점
- 조사항목: 유통중 키위 패키지와 가격



- 시부야 도큐 백화점
- 매장에서 벌크로 받아서 직접 포장 봉투에 6개입으로 포장
- 판매 가격 6개에 980엔
- 후숙상태 바로 먹기 좋은 정도
- 95 size 그린키위 판매



- 긴자역 미츠코시 백화점
- 개당 포장 그린키위 판매
- 매장에서 벌크로 받아서 직접 포장 개별로 선물세트 포장 가능함
- 판매 가격 324엔
- 후숙상태 바로 먹기 좋은 정도
- 115 size



- 긴자역 긴자식스
- 4개입 플라스틱 포장
- 작은 소매점 형태 식료품 마트에서 판매
- 가격 540엔
- 후숙상태 바로 먹기 좋은 정도
- 115 size



- 도쿄역 다이마루 백화점
- 그린키위만 판매
- 개별 포장 / 백화점 내에서 별크로 되어 있는 상품을 개별 포장
- 개당 200엔에 판매
- 115 size
- 후숙상태 마로 먹기 좋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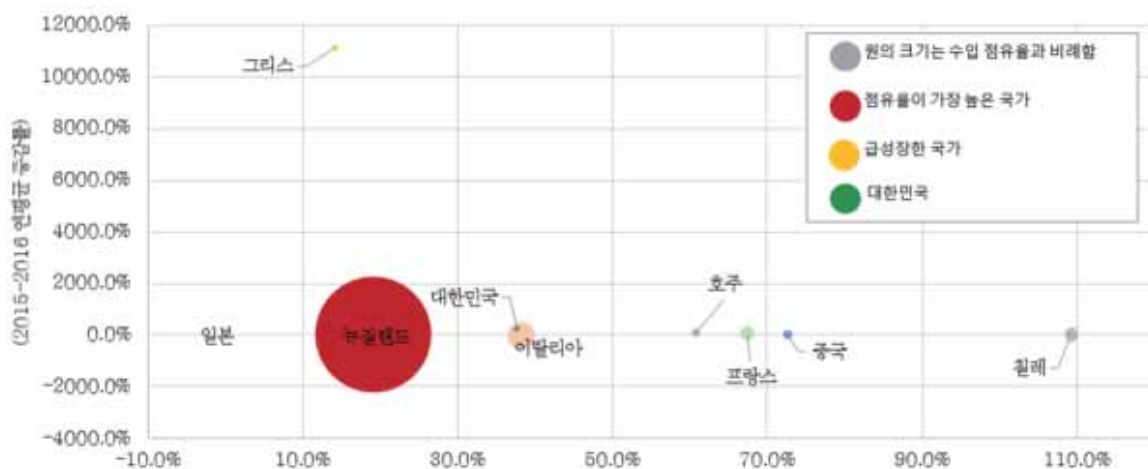
-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마트 세이유
- 4개입 플라스틱 포장
- 포장 된 상태로 판매
- 그린키위 후숙 잘 되어있지 않음
- 그린키위판매
- 115 size 키위 4개입 498엔에 판매

나. 말레이시아

표 5. 말레이시아 HS CODE 0810.50 (KIWIFRUIT)수입 점유율 및 증감률 비교 (단위 : kg)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1	AUSTRALIA	70,198	143,196	440,777	970,832	432,107
2	CHILE	40,493	2,913	2,034,397	2,783,225	2,397,436
3	CHINA	43,963	336,810	770,659	1,141,697	2,003,895
4	FRANCE	191,537	2,479,049	904,758	1,502,349	4,220,335
5	GERMANY	2,809	1,205,499	314,632	-	-
6	GREECE	-	635	3,048	465,455	1,323,111
7	IRAN, ISLAMIC REPUBLIC OF	-	195,610	1,472	-	25,037
8	ITALY	781,937	3,213,876	7,557,919	4,917,730	4,295,916
9	JAPAN	-	514	18,487	16,917	8,356
10	KOREA, REPUBLIC OF	141	-	162,263	627,688	465,721
11	LEBANON	-	-	399	-	-
12	NETHERLANDS	5,114	-	-	183	641
13	NEW CALEDONIA	-	-	501,575	-	-
14	NEW ZEALAND	31,713,615	67,709,831	65,466,917	80,774,381	54,469,488
15	SOUTH AFRICA	265	-	-	-	-
16	SPAIN	460,930	1,391,409	931,328	-	763,830
17	SWITZERLAND	366	-	-	-	-
18	TAIWAN, PROVINCE OF CHINA	-	-	102,609	-	6,978
19	THAILAND	36,999	-	-	-	-
20	UNITED KINGDOM	3,193	-	-	-	-
21	UNITED STATES	11,841	2,916	3,503	3,026	768
22	VIET NAM	-	63	-	-	-
GRAND TOTAL		33,363,401	76,682,321	79,214,743	93,203,483	70,413,619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간 말레이시아 키위 주요 수입국 중 뉴질랜드가 89.5%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국가였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109.2% 증가한 칠레로 나타났으며 그리스는 2015년 대비 2016년 수입액이 1,000달러에서 11만 2,000달러로 급증하며 성장률이 11100.0%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이후 5년간 점유율 0.2%로 전체 수입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산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59.5%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그림 4. 말레이시아 키위 (2012-2016) 연평균증감률

2014년 기준 말레이시아 키위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자체 생산량은 0톤, 수입량은 9,396톤, 수출량은 337톤(타국산 재수출로 추산됨), 수요량은 9,059톤, 자급률 0%, 1인당 소비량은 0.30kg의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률은 0%로 전체 키위 수요량을 수입산 제품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말레이시아 키위 수입량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고 2009년 3,727톤 규모였던 키위 수입량은 2012년 5,364톤 규모, 2014년에는 9,000톤 규모를 넘어서는 추이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말레이시아 1인당 키위 소비량 역시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0.16kg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0.30kg으로 2배 증가한 바 있다.

다. 싱가포르

표 6. 싱가포르 키위 수입금액

(단위 : US \$)

Exporters	2014	2015	2016	2017	2018
World	15,777	18,357	19,427	16,527	21,327
New Zealand	11,165	12,011	12,139	11,392	15,963
Italy	3,131	4,112	4,429	3,803	3,385
China	87	69	268	305	1,189
Chile	350	319	436	419	233
Greece	118	172	230	31	138
Australia	659	534	575	179	125
South Africa	0	0	0	15	116
Korea, Republic of	0	500	213	164	83
France	25	171	187	60	28
Japan	26	15	21	26	26
Netherlands	7	17	17	17	23
Malaysia	111	158	601	20	10
United States of America	98	11	6	13	5
Spain	0	269	304	0	3
United Kingdom	0	0	0	0	2
Hong Kong, China	0	0	0	35	0
Taipei, Chinese	0	0	0	49	0

싱가포르의 키위 생산량은 0톤으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1%만이 농업용지로 사용되는 비농업국가인데다가 키위의 특성상 적도의 열대 기후가 맞지 않아 싱가포르는 키위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에서 2016년까지 5년간 싱가포르 키위 주요 수입국 중 뉴질랜드가 69.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국가였고 2015년 대비 2016년 키위 수입액 성장률이 급상승한 국가는 1년간 289.9%가 증가한 중국이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이후 5년간 점유율 0.8%로 전체 수입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4년간은 수입이 없었으나 2015년 50만 달러였던 것이 2016년에는 21만 1,000달러로 떨어져, 2016년에는 전년대비 57.8%의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출처 : FAOSTAT(www.fao.org/faostat),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그림 5. 싱가포르 키위 수급추이

2014년 기준 싱가포르 키위 시장에서 싱가포르 자체 생산량은 0톤, 수입량은 5,452톤, 수출량은 691톤, 수요량은 4,761톤, 자급률 0%, 1인당 소비량은 0.86kg의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위를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키위 수요량의 전부를 수입산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는 수요량보다 많은 키위를 수입하되, 무관세 덕에 수요량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된 키위를 중개무역의 일환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싱가포르 키위 수입량은 수요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3,000톤 규모였던 키위 수입량은 2011년 4,000톤 규모, 2014년에는 5,000톤 규모를 넘어서는 추이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 1인당 키위 소비량 역시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9년 당시 0.64kg이었던 키위 소비량은 2014년 0.86kg으로 증가한 상태이다.

제스프리사의 홍보에 힘입어 키위는 남반구의 과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은 키위 생산국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내 국가별 키위 공급 시기는 다음 그림과 같은데 뉴질랜드 공급 시기와의 시간차를 이용한 마케팅 활용 시 시장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뉴질랜드												
이태리												
칠레												
호주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	Ciku는 열대과일로 연중 수시 공급됨											
그리스												
일본												
영국												

* 출처 : Zespri, Furctidor.com

〈싱가포르 내 국가별 참다래 공급 시기〉

○ FairPrice 내 키위 유통현황



○ Cold Storage 내 키위 유통현황



2018년 11월 싱가포르 콜드스토리지 매장에는 뉴질랜드산과 한국산 레드키위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뉴질랜드산 키위는 그린키위 4.90\$, 골드키위 5.90\$ 가격이었으며 한국산 레드키위의 경우 5개입 포장에 7.95\$ 수준으로 키위 진열 매대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산 키위의 경우에는 제스프리 점보 그린이라는 상품명으로 3개입 대과 포장도 선보여지고 있었다.

○ 싱가포르 백화점 내 일본산 농산물 전문매장 KYOHO-YA



제스프리저팬의 수출품으로 확인되며 일본산 농산물전문매장 코너에 소량 진열되어 있는 형태이다.

○ 싱가포르 VIVOMART

		
6.90\$	4.90\$	5.9\$



그림 6. 싱가포르 시장 유통 중 키위(순서대로 제스프리 그린 점보, 제스프리 골드, 제스프리골드, 제스프리 골드 점보 유기농)



유통 중 키위의 대부분은 별도의 후숙 없이 먹기 적합한 상태이며 골드의 경우 13~15.5%, 그린의 경우 14% 수준의 당도를 보이고 있음.

라. 홍콩

표 7. 홍콩 HS CODE 0810.50 (KIWIFRUIT) 수입금액

(단위 : US \$)

Exporters	2014	2015	2016	2017	2018
World	41,069	43,188	55,031	52,553	48,243
New Zealand	22,790	24,320	24,151	21,917	23,536
Chile	5,488	9,164	20,808	19,131	16,759
Italy	7,543	6,014	6,120	8,000	5,045
Greece	717	680	605	754	1,126
Japan	294	293	418	855	628
Korea, Republic of	1,379	617	670	98	362
France	468	441	306	356	229
China	0	39	477	336	148
Australia	299	239	480	60	114
Taipei, Chinese	835	869	202	249	93
United States of America	7	27	233	369	67
Viet Nam	20	0	0	0	45
Thailand	219	427	356	345	38
South Africa	0	0	0	0	25
United Kingdom	0	0	8	14	17
Netherlands	0	0	0	0	8
Argentina	14	0	0	0	0
Israel	45	0	0	0	0
Malaysia	0	58	31	0	0
Panama	0	0	22	0	0
Singapore	950	0	101	37	0
Spain	0	0	43	33	0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간 홍콩 키위 주요 수입국 중 뉴질랜드가 55.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국가였다. 한편, 5년간 가장 연평균 성장률이 높았던 국가는 5년간 131.3%가 증가한 미국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6년 성장률이 급상승한 국가 역시 2년간 1596.3%가 증가한 미국이 차지했고, 미국의 2015년 키위 수입액 규모는 2만 7,000달러였으나, 2016년에 45만 8,000달러로 급증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이후 5년간 점유율 평균 1.1%로 전체 수입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성장률은 53.1%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63.5%로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출처 : FAOSTAT(www.fao.org/faostat),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그림 6. 홍콩 키위 (2009-2014) 수급추이

2014년 기준 홍콩 키위 시장에서 홍콩 자체 생산량은 0톤, 수입량은 1만 5,907톤, 수출량 4,547톤, 수요량은 1만 1,360톤, 자급률 0%, 1인당 소비량은 1.57kg의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률은 0%로 키위 수요량을 전부 수입산 제품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 키위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 1만 6,886톤 규모였던 키위 수입량은 2011년 2만 2,834톤 규모로 늘어났으나, 2013년에는 다시 1만 5,907톤 규모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은 수요량보다 많은 키위를 수입하되, 무관세 덕에 수요량을 제외 하고 남은 수입된 키위를 중개무역의 일환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콩 1인당 키위 소비량 역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09년 시 1.68kg였던 키위 소비량은 2014년 1.57kg으로 소폭 감소한 상태이다.

○ 2018 홍콩 FOODEX 참여한 각국의 키위품목 전시 부스



칠레 키위 부스 진열상태



이탈리아 진골드 전시부스



뉴질랜드 제스프리사 홍보 부스

마. 필리핀

○ HYPERMARKET



그린키위 224 / 6개입



골드키위 114 / 3개입

○ Robinsons Supermarket



그린키위 : 35 / 개



골드키위 : 50 / 개

○ MARKETPLACE



필리핀 내 유통 키위의 대부분은 제스프리 중.저가 매장보다는 프리미엄 매장 내 입점해 있는 상태이다. 다른 열대과일의 가격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매대 진열되어 있는 키위의 대부분은 후숙이 진행된 상태로 구매 후 먹기에 부담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프리미엄 매장인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수입산 과일 및 고품위 열대과일이 판매되는 매장으로 매장 메인에 제스프리의 판촉 매대가 위치해 있었다.

바. 베트남

○ TONY FRUIT (로드샵 형태의 프리미엄 과일전문 판매점)





4입 골드키위 / 평균당도 16.7% 수준

4입 그린키위 / 평균당도 15.8% 수준

현재 베트남 수출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한-베트남 검역협정 미체결 상태로 수출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베트남의 로드샵 형태의 수입과일 전문점인 TONY FRUIT에 유통중인 키위는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의 골드와 그린키위로 벌크 형태로 진열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매장 자체의 소형 패키지인 4입 트레이의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형 유통센터 식품매장



129,000 / KG



199,000 / KG



벌크형태로 판매되는 골드키위
192,000 / KG



벌크 형태로 판매되는 그린 키위
115,200 / KG



골드 점보 3입
96,000 / PACK



그린 점보 3입
70,400 / PACK

사. 대만

○ COSTCO

	
	
	
골드키위	그린키위

○ Carrefour

	
	
99 / 팩	139 / 팩
그린키위	골드키위

현재 대만의 경우에는 한국과 2019년 중 검역체결 예정으로 향후 키위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까르푸 매장 내 키위의 판매 형태는 벌크형태, 소포장 등 다양했으며 키위 생과와 같이 주스 및 가공품이 인접 매대에서 같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5. 동남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국 현황

가.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번째로 많은 키위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키위 브랜드인 Zespri 본사가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세계 시장의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에 시장 금액 1조 원을 돌파하였고 주요 생산지는 Bay of Plen지방으로 뉴질랜드 북 섬에 위치한 지방이다. 뉴질랜드는 대체적으로 온대 해양성 기후를 띠나 북섬의 경우 연중 따뜻하여 키위 재배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개요]			
① 글로벌 생산량 순위		3위(2016년)	
② 키위 재배 면적		14,340ha(-)	
③ 키위 생산 규모		28만 5,700톤(2016년)	
④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⑤ 총품 수입 키위시장점유율		43.9%	

출처 : World Atlas (www.worldatlas.com)

[대표 기업] Zespri	
	- 1997년 설립된 뉴질랜드 기업으로 50개 국가 이상에서 키위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키위 시장에서 30%의 양을 다루고 있음 -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한국 등에 생산지를 두고 있음 - 그린 키위, 골드 키위 등 6개의 키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

출처 : Zespri (www.zespri.com)

[대표 생산지 및 품종]		
대표 생산지	대표 품종	
		
중부지역	그린 키위	골드 키위

나. 칠레

칠레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키위 생산국이며 연간 25만 톤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재배지는 중남부 지역으로 오히긴스(O'Higgins) 지역, 마울레(Maule) 지역, 비오비오(Biobio) 지역, 아라우카니아(Araucania) 지역 일대이며 해당 지역은 온대 기후에 해당하여 타 지역에 비해 키위 재배에 적당하다. 키위 수확 기간은 3월에서 4월로 약 2개월 동안 이루어고 있다.

[국가 개요]		
① 글로벌 생산량 순위	4위(2016년)	
② 키위 재배 면적	9,949ha(-)	
③ 키위 생산 규모	28만 5,700톤(2016년)	
④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⑤ 율품 수입 키위시장점유율	36.2%	
출처 : World Atlas (www.worldatlas.com)		
[대표 기업] Frusan		
	- 당사는 1979년 설립된 기업으로 칠레 신선 과일 시장의 선도기업임. 5개 대륙 50개 이상의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음 - 5,000ha 이상의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재배할 수 있도록 Region VI부터 Region X까지에 위치하고 있음 - 페루에 있는 농장과도 거래를 하고 있음 -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되 Global G.A.P., BRC15.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출처 : Frusan (www.frusan.cl)		
[대표 생산지 및 품종]		
대표 생산지	대표 품종	
		
중남부 (Region VI ~ Region IX)	그린 키위	골드 키위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세계 2위의 키위 생산 국가로 매년 약 44만 톤 가량을 수확하고 있으며, 이는 북반구 지역 총 생산량의 70%에 해당하는 양으로 파악된다. 또한 1970년 이후로 기존의 포도 재배시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키위 생산량을 증가시켜왔고 주요 산지는 Latina, Piedmont, Emilia Romagna, Veneto이며 중부 및 북부 전역에 해당한다.

[국가 개요]	
① 글로벌 생산량 순위	2위(2016년)
② 키위 재배 면적	8,000ha(·)
③ 키위 생산 규모	44만 7,560톤(2016년)
④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⑤ 총품 수입 키위시장점유율	12.0%



출처 : World Atlas (www.worldatlas.com/)

[대표 기업] Kiwi Uno SPA	
	- 당사는 1980년 키위를 주력 제품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임 - 칠레에 Unikiwi Ltd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10ha의 농장을 통해 키위를 생산하고 있음 - 남반구와 북반구 양쪽에서 생산하여 1년 내내 키위를 생산하여 공급함 - 15,000톤의 키위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창고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복숭아,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도 생산하고 있음
출처 : Kiwi Uno SPA (www.riviera.it)	
[대표 생산지 및 품종]	
대표 생산지	대표 품종
중부 및 북부 전역	그린 키위

참 고 문 헌

1. 말레이시아 키위 해외시장맞춤조사, 2017 kati
2. 싱가포르 키위 해외시장맞춤조사, 2017 kati
3. 홍콩 키위 해외시장맞춤보고서, 2017. kati
4.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2017)
5. 해외 농산물유통실태 보고서(aT, 2016)

제1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키위 수출연구사업단 (동향보고서)

인 쇄 2019년 4월 25일

발 행 2019년 4월 30일

저 자 키위 수출연구사업단

발행인 정병석

발행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등 록 1981년 5월 21일 제53호

주 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 화 062-530-0571~2

마케팅 062-530-0573

팩 스 062-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up.co.kr>

비매품

ISBN 978-89-6849-639-4 (93520)



제1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키위 수출연구사업단